

<h1 style="margin: 0;">태평양주보</h1> <h2 style="margin: 0;">KOREAN PACIFIC WEEKLY</h2>			
발행인 발행소 사장 주필 편집 발행호수 발행일	동지 회중앙부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리철근 김창원 850-849 1729 음력 1월 21일 금요일	Publisher Address President Editor Telephone Subscription Issue No. Date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Chung Kun Lee Donald C.W. Kim 850-849 \$10.00 per year 1729 February 7, 1969:Fri

닉슨 대통령 구라파 5개국을 방문 二十三일에 출발, 기자회견서 발표

(워싱턴 2월6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대통령 취임 이래 두번째의 기자회견을 하고, 구라파방문계획, 비에트남문제, 중동문제 기타 국내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하였다. 이 중 구라파방문계획에 대해서는, 금일 23일 (일요일) 출발, 벨기, 영국, 서독, 이태리, 불란서의 5개국 방문, 각국의 원수, 퐁빙왕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과 각각 회담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닉슨대통령은 이번의 구라파방문계획의 목적은, 서측동맹의 강화에 있으며, 이러한 여행은 소련 측과의 회담에 절대필요한것이라고하는 견해를 말하였다. 닉슨대통령은 또 서독제재중에는 서버린도 방문할 예정이다.

비에트남 문제

또 비에트남문제에 대해서는 "남비에트남군이 군에대치할수있는 상태에 들어스고, 또 파리 회담 회담기라의 정세의 변화로 일부 미군이 철수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시" 미군을 철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파리 회담 회담에 대해서는 "시작은 잘 되었다고 본다" 라고 말하고, 랫지미국수석 대표와 회담할 예정인데, 동대표가 권고하지 않는한, 남비에트남대표와 회담할 계획이 없는것, 또 해방전선, 북비에트남대표와도 지금 회담할 예정이 아닌데, "혹시 오랜후에 회담할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중공의 핵병기 문제

중공의 핵병기의 위험은 적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위험은 적어지지 않았다. 한도한형적 미실망은 대중공방위의 목적만이 아니고, 전면적인 방위계획의 하나이다. 중공의 위험은 여러 가지와 다르지 않는데, 방위계획은 모든면에 있어서 고려중이다. 소련과의 군축 회담도 진전하지 않고있는데, 회담에는 중점을 둘 자점이다" 라고 말하였다.

중동 문제

중동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국련에 있어서의 4대국대표의 회담을 수락함으로써 중동회담공작에 지도권을 쥐게 되는것이며, 중동정세는 대전의 도화선이 될 위험성도 포함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해저유전 문제

대통령은 또 남캐리블니아 해상의 해저유전과 관련한 중대한 해양 오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해저유전에 대한 엄한 규제를 실시할것을 지지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다.



파리 회담 제 3회 본회의, 정돈상태

(파리 2월6일밤, 에이 피) 파리 회담 회담은 제3회의 본회의를 마쳤는데, 정돈의 타개에는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의 회담은 6시간 20분에 걸쳐서 행하여졌다. 다음 회의는 1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랫지 미국 수석대표는 석상 북비에트남 공민족해방전선에 대해서, 회담 해결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하도록 호소하였는데, 공산측의 남비에트남 정부에 대해서 공격 때문에 정돈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랫지 수석대표는 "속한 진전이 있도록 전력을 다하였는데, 사태는 곤란하다. 타관은 만수무답이다. 그러나 타담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윤보, 항구적인 평화를 계속하여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파리 회담시 양보치 않는다 추대통령 답

(사이공 2월6일밤, 에이 피) 권.반.추남비에트남 대통령은 당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남비에트남군은 비에트남전쟁에 있어서 지금 만든 미군병력에 대치할 힘을 가지고 있다. 미.남비에트남은 금년중에 일부 미군병력의 철퇴에 대해서 준비중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동대통령은 파리 회담 회담에 대해서 "공산측은 정돈을 모략하고, 미국이 초조하여 남비에트남에 양보하라고 요구할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보는 우리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남비에트남은 회담으로부터 퇴색하지 않을 작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四만명의 시위로 미군공군기지 일시 마비상태

(오기나와 타임스 통신) 뽀 52폭격기의 철거, 원자잠수함기항저지, 핵 병기철거, 총합노동조형철폐를 요구하고 4일 오후 1시 25분부터 가디나총합크럽에서 열린 "생명을 지키는 헌민총결기대회"는 오후 3시까지, 뽀 52기가 언제든지 주둔하고있는 가디나미공군기지를 둘러싸다. 드리치는 폭우속에 대회에 참가한 교직원회, 전오기나와노동연맹, 3대학총일학생회등 민주단체, 노동조합, 학생단체등 2천명에 일반시민등 약4만명의 시위대는, 동기지를 위시하여 그의 주변의 기지까지,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정도의 심한 시위를 하였다. 이날의 시위에서, 동기지의 대문 이 학생시위대의 폭력으로 파괴됨이외에 경관대와 학생시상방에 다수의 손상이나고, 19세의 군도 청년이 체포되는 소동이있었으나, 예상된 기지돌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오후 5시 지나, 해산하였다.

고스이긴 소련수상의 병망명은 사실무근

(모스크바 2월1일밤, 공동) 소련 외무성의 자미야친신본부장은 31일, "고스이긴수상은 현재, 모스크바 교외에서 휴가중이고, 병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근일중에 공무에 복귀할것이 다라고 언명하였다. 고스이긴수상은 작년 12월 20일, 신임의 세이도.불탄서대사를 접견할 때, 공식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설, 실각설등이 떠돌고있었다. 고스이긴수상이 겨울철에 휴가를 갖는것은 이례인데, 작년에는 체코사건등으로 휴가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휴가를 취하는것으로 보인다.

늑손 신정권 항만 파업에 개입

(워싱턴 2월4일밤, 공동) 슬스미노동장관은 3일, 미국제항만노동조합에 의한 대서양, 페시포망의 항만동맹파업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호소하고, 데이빗.콜시를 연방특별조정관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늑손정권의 항만파업에 대한 첫번째의 본격적인 개입이다.

(제3편에 계속)



(제2면으로부터 계속)

골씨는 작년 존슨정권이 양만파업에 래트드.아-드레이법을 발동시켜, 80일간의 파업중지를 명령 시켰을때에도 사실조사를하고, 최근 뉴욕선주협회와 노동자간의 잠정협정체결에도 나섰다. 잠정협정은 뉴욕항외에 뉴-오리언스에서 체결되었는데, 노동자측에서는 메인으로부터 텍사스 까지 전항만의 지부가 실험정에 조인할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고 말하고있다. 골씨는 조금씩 선주와 노동자대표와 회견하는데, 그의 장소와 시기는 아직 확실치안라.

한국의 개혁은 불가피한 것

九월이전 통과목표로 서두르는 개혁 작업

(서울 에이팜 통신 보도) 지금까지 이면적으로 여당내에서 옮겨왔던 개혁 움직임은 박정희대통령 이 서두르지말라고말한것과는 상관없이 빠른 박차를 가하면서 1971년의 박대통령 3선을 위한 길을 터놓기 위해 양성되고있다. 박대통령이 의외하든 안하든간에 그의 민주공화당은 국회가 다음회제헌도예산안심의에 착수해야할 오는 9월이전에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투표 도서 이의 승인을 얻을계획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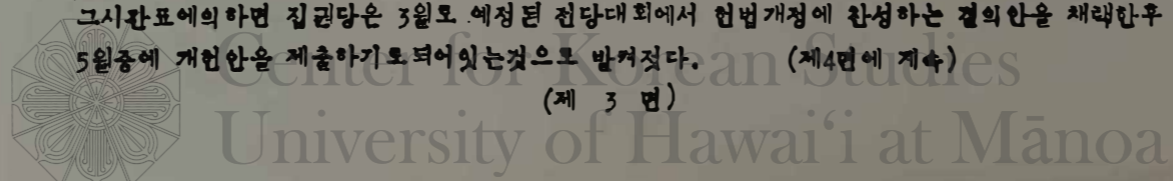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3선을 금하고있는 헌법 규정이다. 박대통령은 1월초 헌투기자 회견에서 개헌문제물거론할 필요가있다면 금년말이던 내년초쯤에 해도 늦지않을것이라고 말한바있다.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이 적어도 개혁의 가능성을 짐도할 필요성만은 인정 하고있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이곳 정계관측자들은 대체로 해석하고있다. 박대통령은 "그의 집권하에서 성취된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복귀위험이 중대하는 이때, 그의 3선을 원하는 압도적 대다수국민의 뿌리깊수업은 압력"에 결국에는 굽히게될것으로 그의 권위 정치보좌관들 대다수가 생각하고있다고 집권층의 고위소시동이 17일 에이피 통신기자에게 말했다. 이소시동은 71년 8월 박대통령의 헌임기가 "달나면, 닥쳐올것으로 일부 정계관측자들이 내다보고있는 정치적 혼란때문에 현재의 경제성장속도가 중단되지안기를 박대통령도 바랄것 이기때문에 그들은 그러케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헌안의 개혁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박대통령이 계속 3천만의 한국국민을 통치해야 하는주요이유도 대체로 다음과같은 점을 들었다.

개혁찬동 이유

1. 집권당내에 박대통령의 뒤를 이을만한 뛰어난 정치적 후계자가 없다는데다가 야당은 파벌로 약화되어있서, 정치적 혼란이 생길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은 박대통령의 임기가 "달나후 국가 경제개발을 지연시킬 뿐만아니라 복귀로부터의 보다많은 도발행위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2. 한국은 61년 이래 박대통령의 영도아래 전례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성취했으며 또 70년대 중엽에 달성 될것으로 정부가 내다보는 국민의 숙원인 경제자립 성취를 위해서는 박대통령의 확고한 지도력을 계속필요모한다.
3. 박대통령은 강력한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받고있고, 복귀가 "계틸라" 활동강화로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경우, 국민을 영도하는데는 이 군인출신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생각되고 있다.

사실 한때 박대통령의 오른팔로서 집권당을 지도해온 김종필씨가 작년 5월 정계에서 은퇴한 이래 하나의 정치적 두용거리로 등장한것은 박대통령의 뒤를이을 확정된 후계자가 없다는것이다. 김종필씨는 그후 정치적인기가 급락했으며 그의 정치적 세력은 거의 붕괴되고말았다. 한 책임 있는 집권당소시동은 당의 고위수뇌들이 이미 헌법개정 의 일정을 자조노모있다고 말했다.

그시관표에의하면 집권당은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한후 5월중에 개혁안을 제출하기로되어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제4면에 계속)



(제3면에서 계속)

개헌안이 정식으로 발의 되면, 종화당과 유진오바사가 이끄는 야당인 신민당간의 협정치적유전은 흔들리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은 현재 개헌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선에서 불과 4석이 모자라는 113석을 확보하고있기때문에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거의 확실시 되고있다. 모자라는 정족수도 현재 14개의석을 가지도잇는 친여광적인 정우회의 지지를얻어 쉽사리 채울수잇을것이다

국민투표에도 각관

개헌안은 또한 국민투표에서 승인을얻어야하는데, 이것도 현실정당에는 별로 문제가되지 않을것이다. 한 집권당간부는 "5년동안에 국민소득을 80달러에서 1백70달러로 올리노았고, 수출고물근 15배나 증대시킨 정부를 외면할국민은 없을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개헌저지를 위해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정부는 학생들모하여금 일맛동안 정치에서 손을떼게하는데 성공했는데, 집권당의 개헌추진입을 반대하고 나설지도모를 학생들의 반항을 격기 위해 그들에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것으로 보인다.

야간의 반대의사를 표명할 소수의 중립계파원이 잇슬지도모르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을것을 확신하고잇는 집권당에 불리하게 "금 충분한 영향력을 이 신문들이 발휘하게 될는지 두고보아야알일이다. 이법 개헌문제에 결과를보면 1970년대에 무력충일을 하겠다고 장담해온 북괴김일성공산도당의 급증하는 도발행위에 대처하여서 조국방위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성장도 계속해 추진해나갈수잇는 역량이 한국국민에게잇는지 업는지 대체로 밝혀질것이다.

동지회 호상부 대의회 소집

동지회 호상부건물을 판매하기도 결정이 되었으나, 원천히 매매가 결판을 질때까지는 전자와 같이 호상부의 사무를 계속해야겠으며, 또한 동지회와 호상부 양기권의 중요사항이 적치 되어 잇스니 이 사건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오는 2월 16일 (셋째주일) 오후 2시부터 동지회집회실에서 동지회 호상부대의회를 개최하려고 광고하오니 일반회원들께서는 이외가이 양지하시오만은 회원들께서 리참하시기를 바랍니다.

1969년 1월 20일 동지회중앙부리사장 리 정 근

찾는 사람, 작은 눈을 찾습니다

경북의성군 의성읍 그촌리 출신인 김하라(일명 김일길 호 해운당) 선생께서는 서기 1895년경 일본인이 우리국토를 시찰하고 국권을 유린할때 격분한 나머지 의병을 이끄러 불순분자들을 격멸하고 국권을 보존하려는 뜻에서 경기, 충청, 경상각지에서 여력차에 걸전을 거듭하다가 그 이듬해인 서기 1896년에 경북영덕군 강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는바, 그당시 선생의 유족으로는 아들 한사람과 딸 형제가잇었는데, 아들과 딸(김영규 아명 큰술이)은 의정대 만주에계시는 김좌진장군을 찾아와서 독립운동에 종사한것까지는 확신하나 그후 생사를 아지못하며, 둘째딸(아명 자근 술이)은 기독교신자로 목포에서 전도부인으로 일하다가 미인선교사를 따라, 하와이로 건너가 결혼하여 자녀도두고 지내면서, 2차대전초기에 고향인 경북의성에 돌아와서, 근족집에 1개월가량 체류하고 다시 하와이로 갔다면서 떠나갔는데, 일본 신화에서 서신연락이 잇섯을 뵈면, 그후에는 소식이 단어졌다. 의성김씨 중친 회에서는 금번 김하라선생의 사적을 발견하였기 상훈을 신청코저 그 유족의 소재를 알코지하오니, 둘째딸 "자근 술이" 가 하와이에 생존해잇는지 여부와 관일 사담하였던 그유족의 주소, 성명, 연령등을 조사코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내력을 아지는분은 호랑총영사관으로 연락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